

예능은 좋은 역사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MBC <무한도전> 329, 330회 ‘TV 특강’ 편

조성민

수업 시작종이 울렸다.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교양 지식으로 꼽히는 역사와 관련하여, 공영방송을 비롯한 여러 방송사들은 전체 사회 구성원에 올바른 역사 지식을 전달하고, 나아가 역사적 사고력을 배양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양 프로그램은 물론 예능, 드라마 등의 장르에서도 역사 혹은 역사적 요소들을 소재로 다룸으로써 방송의 교육 기능에 일조하고 있다. 이 중에는 역사를 단순한 내용 상의 소재로 간단히 차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역사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KBS의 <역사스페셜>이었다. <역사스페셜>은 한국사의 여러 정보나 쟁점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시청자들에게 좋은 ‘역사 교과서’의 역할을 해왔다. 교육이 반드시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 역시 국민 교육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KBS와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인 MBC에서도 ‘역사 교육’의 일환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편성해온 역사가 있었다. KBS가 대하사극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진중한 방식으로 역사를 다룬다면, MBC는 퓨전사극과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금 더 가볍고 친숙한 방식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그 경향성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2013년 5월 11일(329회)과 18일(330회)에 방영된 <무한도전 - ‘TV특강’ 편>(이하 <무한도전>)이었다. <무한도전>은 한국사 상식이 부족한 젊은 층에게 한국사 지식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방송에서 <무한도전> 진행자들은 유명 한국사 인터넷 강사들에게 직접 한국사 암기 방식을 배우고, 그것을 현세대 젊은 층을 대표하는 아이돌 연예인들에게 특강의 형식으로 전달하였다.

방영 직후 많은 시청자들이 젊은 세대의 역사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세태를 지적하며 ‘제대로 된 역사 교육’에 대해 언급했다. <무한도전>의 영향인지 ‘역사교과 필수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전보다 훨씬 늘어난 듯하다. 분명 <무한도전>은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역사 교육’의 필요성이나 효용, 방법론 등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 역사 교육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무한도전>의 공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높아진 관심이 모두 ‘옳은 관심’인지, 혹시 ‘잘못된 관심’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수업 시간에는 뭘 배웠니?

<무한도전>이 택한 한국사 교육 방식은 현행 제도권 초·중등학교의 역사 교육과 다른 점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웃기다’는 점이 추가되었을 뿐이었다. 교육의 방식이나 내용은 다수의 국민들이 12년간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경험해 온 ‘역사 교육’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았다. 따라서 <무한도전>이 기성 교육을 비판하는 취지를 갖고 있었다면, 이것

은 자가당착이 될 가능성이 몹시 높다. 젊은 세대가 역사 인식에 취약해진 이유는 결국 기성 교육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역사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며 나온 기획물 역시 기성 교육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기존 역사 교육이 외면 당한 가장 큰 이유는 ‘맥락’의 부재였다. 역사는 결국 시간의 흐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기성 교육은 시간의 흐름을 무시한 파편적 정보들을 일정한 기준 없이 중횡무진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교육 현장에서 역사는 ‘암기과목’이 되고 외면 받게 되었다. <무한도전>이 ‘역사’를 전달하는 방식은 현행 교육 현장의 무조건적 주입식 교육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낫지는 않았다. 총 2회에 걸친 방송분에서 ‘웃음’이라는 요소만 빼면 많은 사람들이 학창시절에 아무런 열의 없이 무기력하게 앉아 기계적으로 노트 필기를 하고 있었던 그 교실을 볼 수 있다. 그 교실에서 역사를 배우고 자란 많은 대중들이 또 다시 <무한도전>의 교육 대상이 되지 않았는가. 단순 암기에 의해 습득한 정보들이 머리 속에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휘발되는지는 시청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리라.

방송 시간 관계상 시청자는 편집분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수 있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짧은 방송 시간으로 인한 오해를 타하기에는, <무한도전>이 역사 교육의 ‘멘토’로 찾아간, 이른바 ‘스타 인터넷 강사’들의 교수법을 봐도 철저히 기존 역사 교육 방식을 따랐으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멘토로 나선 강사들은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강사들이다. 그들은 심도 있는 역사적 사고력의 배양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시험을 대비해 단기간에 많은 정보를 암기해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강사들이었던 것이다. 멘토들이 <무한도전> 진행자들에게 전달한 것 역시 ‘암기 방법’이었지, ‘역사적 사고’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 <무한도전>은 그저 ‘조금 더 재미있는 한국사 인터넷 강의’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기존 역사 교육의 또 다른 큰 문제인 감성 일변도의 교육 역시 <무한도전>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이다. 329회 방송분 말미에서는 특강의 강사로 나선 진행자들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의 심경을 묘사한 글과 유관순 열사의 순국 과정을 소개하며 현장의 출연자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눈물샘까지도 자극하였다. 330회 방송분에서는 임진왜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이순신’을 연호하게 하여 민족감정을 고취시키는 장면도 등장한다. 물론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 역시 역사 교육의 일부이며, 민족주의에 경도된 어떤 이들은 역사 교육의 효용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감성 일변도란, 단순한 과잉 감성 소구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 판단까지도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내면화하려 하는 경향을 모두 포괄한다. <무한도전>이 저지른 여러 큰 실수 중 하나는 ‘선덕여왕의 위대한 업적 중 영토 확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방송에 내보낸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삼국시대는 영토 경계선이 현대 국가와

같이 정확히 구획되어 있지 않았으며, 국경선에서의 분쟁도 잦았기 때문에 정말로 영토 확장이 일체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막으로 '선덕여왕대에는 안정과 발전을 도모했다'고 부연하긴 했지만, 이 역시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불과하며, 따라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해서는 안된다. '위대함', '안정', '발전' 따위는 역사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역사에 대한 주체적 판단력을 흐리게하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 현행 역사 교육의 문제이고, 이것은 감정 소구와 맞물려 역사를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닌 주관적인 플롯의 나열로 만든다. 가치 판단은 논리나 실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교육의 명목으로 주입되어서는 안된다.

329회 방송분에서 진행자 유재석과 하하는 멘토에게 사사 받은 대로 '세종대왕은 선천적인 천재이며, 정조는 후천적인 천재'라는 설명을 표와 함께 정리하여 제시한다. 이는 역사적 인물을 바라보는 일각의 의견을 역사적 맥락에서 탈각해 제시한 것으로,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으면 역사에 대한 모종의 '오해' 만을 양산해내는 교수법일 뿐이다. 다시 말해, <무한도전>은 사실상 더 다양한 학습도구로서의 수업의 방식을 제시하였을 뿐, 역사를 재해석하거나 역사적 사고를 배양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현 사회가 필요로 하지만 현 사회 구성원들에게 부족한 것은 '역사를 통해 얻어가는 지혜' 이지 '민족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조각들' 이 아니다. <무한도전>이 가진 큰 오류의 바탕에는 '역사 인식의 필요성'에 대한 오해가 깔려있었다.

울지 말고 이야기 해 보라고 했다.

많은 한국인들이 역사 혹은 역사학을 학문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존심'의 문제로 여기는 이유 역시 잘못된 역사 교육에 있다. 역사를 '자존심'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순진하면서도 위험한 사고이다. 실제로 현행 교육 방식을 토대로 성장해 전문적인 학문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역사학자들조차도, 일부는 여전히 감정 소구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각으로 역사적 논쟁들을 바라보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영토 분쟁 문제이다. 영토 분쟁의 경우, 서로 다른 두 역사공동체의 충돌이기 때문에 두 주체가 갖는 각각의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논리적 설득이나 논증의 과정이 아닌 감정 소구의 방식으로 문제를 체화한 학자들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전혀 다른 맥락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공감', 즉 '설득'에 실패하게 된다.

역사적 논쟁들을 '자존심'의 문제로 환원하기 시작하면, 감정에서 한발짝 떨어져 이성적인 논거들을 가져오기는커녕, 더욱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강변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 '논증'과 '반박'보다 '감정의 공유', 즉 '공감'이 목적이 되는 역사 교육에 익숙해진 탓이다. 자랑스럽거나 아픈 역사에 웃고 우는 '공감'은 그 역사적 맥락 안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다.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들의 역사에 함께 웃고 울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순진함에 의한 물이해이며, '공감'이 아니라 '논증'과 '반박'을 해야 하는 학자들조차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교육의 실패를 의미한다. 논쟁에서의 승리를 입증할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상 감정 소구로 빠져버려 토론에서 밀려나

는 것이 한국 역사학과 역사 교육의 현주소이다.

성적표가 나왔다.

그렇다면 현행 역사 교육의 맹점을 파고들고자 했던 <무한도전>은 실패한 교육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대안 교육의 매체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무한도전>이 기획 의도면에서는 참신했고 대중적 관심을 모으는 데에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관심을 모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게 드는 이유는 <무한도전>이 도대체 무엇을 비판하고자 하는지, 혹은 무언가를 비판하고는 있기는 한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무한도전>에 관심을 보였던 많은 대중들은 스스로가 받아들인 실패한 역사 교육의 문제를 상기하기 보다는, 단순하고 막연한 ‘역사 교육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무한도전>은 결국 일시적인 감정 유발에만 성공했을 뿐, 더욱 심도있는 논의나 새로운 대안의 제시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혹자는 ‘여가를 웃으며 보내기 위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이상의 교육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예능에서 웃자고 하는 소리에 다큐멘터리처럼 죽자고 달려들지 말라’ 는 비아냥도 들린다. 그러나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한, 그리고 ‘특강’ 이라는, ‘교육’ 의 이름을 달고 있는 한, 잘못된 방식과 내용이 그대로 전파를 타서는 절대 안된다. 재미도, 감동도 없는 프로그램들보다야 <무한도전>이 훨씬 가치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재미와 감동이 있다고 하여 오류까지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329회의 전반부에서 <무한도전> 진행자들은 328회 방송분에서 ‘안중근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져 의거했다’ 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혼선을 빚은 부분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순간부터는 재미나 감동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올바른 방식으로 전달하겠다’ 는 진정성이 필요했으며, 그것이 바로 <무한도전>의 미덕인 ‘리얼리티’ 를 담보하는 부분이다.

숙제를 내주었다.

MBC는 이미 과거에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매우 성공적인 ‘역사 교육’ 을 실행한 바 있었다. 바로 2006년에 방영된 <느낌표 - 74434>(이하 <74434>)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힐 수 있겠다. 물론 민족감정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이 <74434> 역시 아주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74434>는 당시, 그리고 현재까지도 역사학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문화재 반환 문제를 경쾌하지만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방식으로 다루어 ‘역사는 현재와 어떻게 연관지어지는가’ 를 효과적으로 풀어내었다.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된 과정부터, 문화재들의 실태, 그리고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들은 어디에 어떤 문화재가 몇 개 있는지 따위를 암기하도록 강요하지 않고서도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도록 유도해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미와 감동을 모두 잡은’ 프로그램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무한도전>은 ‘TV특강’ 을 제외하고도 종종 역사적 쟁점과 관련한 것들을 주된 소재로 해

왔다.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불거졌던 2011년 9월에는 독도를 상징하는 여러 단서를 모아 폭탄을 제거한다는 내용의 ‘스피드 특집’ 을 방영한 적도 있었다. 심지어 마지막 장면에는 ‘독도 홍보’ 로 유명한 가수 김장훈이 등장해 상징물들의 제시가 결코 우연만이 아니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은유적 서사가 차라리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파편적 정보와 감정의 주입보다는 훨씬 더 큰 교육적 가치가 있을 듯하다. 이제 <무한도전>이 예능 프로그램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에는 대다수의 대중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단발성 기획이 아닌,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역사 교육’ 에 대해, 그리고 ‘역사’ 에 대해 다루어 줄 <무한도전>을 기대해본다.